

소비쿠폰 반사 이익 없었다...백화점·대형마트 판매 악화

호남통계청, 산업활동동향 발표...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12% ↓ 광주, 장비 생산·출하·재고 '트리플상승'...건설투자 증가 등 경기 회복세 전남, 생산지수·건설투자 모두 하락...건설수주액 1043억·17.6% 감소

광주-전남의 8월 중 지역 경기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소비 산업 측면에서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했던 민생소비쿠폰 반사 이익 효과도 없었다.

생산과 건설투자 측면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회복세가 엇갈렸다. 광주는 장비 생산, 출하, 재고 등이 '트리플상승'했고, 민간부문의 건설투자가 대폭 증가하면서 지역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전남은 생산 측면과 건설투자 등 모든 경기가 하락했다.

지난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8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5.4로 전년 동월(97.2) 대비 12.1% 하락했다.

업체별로 백화점은 2.2% 하락한 91.3을 기록했다. 대형마트는 79.0으로 22.1%나 급락했다. 이는 당초 이재명 정부의 소비 진흥 대책이었던 민생소비쿠폰 대상에서 대형마트 등이 제외됐지만,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쿠폰을 사용하는 대신 살림이 넉넉해진 지역민들이 대형마트 등에서도 소비를 늘려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예상과는

다르게 여전히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소비 지체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지난 5월 101.1로 장기평균치(100)를 넘긴 뒤, 6월(90.8), 7월(85.8), 8월(85.4)까지 3달 연속 하락하고 있다.

상품군별로 오락·취미·경비용품 등에 대한 소비는 소폭 증가했지만, 음식료품, 가전, 화장품 등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월 기준 77.1로 전년 동월(96.7)에 견줘 20.3% 하락했다.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70~80대 선을 기록하는 등 소비가 저조했다. 특히 백화점이 없는 전남의 경우 하락한 지수가 대부분 대형마트로 추정되는 만큼, 전남에서도 민생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된 민생소비쿠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생산 및 건설투자 측면에서는 광주와 전남이 엇갈렸다.

8월 중 광주시 광공업 생산지수는 119.1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고, 출하(0.6%), 재고(4.2%) 등 생산 측면의 모든 지표가 소폭 개선됐다. 광공업 생산에서는 업종별로 고무 및 플라스틱(-38.2%), 금속가공(-34.2%), 기계장비(-19.9%) 등이 감소했지만, 전기장비(27.9%), 전자·통신(56.3%), 담배(13.5%) 등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건설 투자 측면에서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액이 대폭 증가했다.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8월 기준 1조 2451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369.7% 증가했다. 공공부문에서 27.5% 줄었지만, 민간부문에서 16835.4% 증가한 결과다. 이는 지난해 '부동산 한파'로 민간부문 건설 투자가 대폭 줄었던 점과 최근 부동산, 기계·장비 등의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전남은 생산지수 및 건설 투자 모두 지표가 하락했다. 전남 광공업 생산지수는 8월 기준 102.2로 전년 동월보다 7.5% 감소했다. 제조업과 전기·가스업이 모두 감소한 결과다. 광공업 생산과 더불어 출하(-4.3%), 재고(-0.4%) 등도 모두 감소했다.

전남 건설수주액은 1043억원으로 전년보다 17.6% 감소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기업과 지자체의 건설 수주가 56.1%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에서 제1차금융, 화학·섬유 등의 건설 수주가 70.1%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추석에 한과 선물 어때요
광주신세계 본관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직원이 담양한과 선물 세트를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추석을 앞두고, 선물로 제격인 지역 특산물 한과 선물세트를 판매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담양한과 예향'과 '창평한과 환벽당'이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GGM, 하반기 공채 경쟁률 36대 1 기록

27명 모집에 992명 지원 11월 최종 합격자 발표

27명을 선발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올해 하반기 채용에 1000명 가까이 접수하며 취업난 속 존재감을 과시했다. 다만 GGM 내부의 노사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고객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지난 30일 GGM에 따르면 2025년 하반기 기술직·일반직 사원 공개 채용 원서 접수 결과 27명 모집에 총 992명이 지원해 평균 36.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기술직은 22명 채용에 860명이 지원해 평균 39.1대 1, 일반직은 5명 모집에 132명이 접수해 평균 26.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GGM은 이번 채용 경쟁률이 높았던 것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 절벽과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때문으로 분석했다.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소형 SUV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을 생산하고 있는 GGM은 앞서 캐스퍼의 국내의 주문 쇄도과 결원 보충에 따라 지난달 15일 2025년 2차 공채 정보를 공고했다.

GGM은 이번 공채 과정을 블라인드 방식으로 하고 인공지능(AI) 역량 검사로 공정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AI 역량

검사, 면접 전형 등을 치른 뒤 건강검진을 거쳐 11월 중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채는 취업난 속 지역 청년들에게 단비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노사 관계 회복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GGM은 2019년 출범 당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따라 무노조·무파업, 임금 인상률 제한 등 노사간 특수한 합의를 했다. 협정서대로라면 노사는 누적 생산 35만대 달성까지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 조건과 작업 환경을 상생협의회의에서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GGM 노조가 만들어지면서 무노조·무파업 원칙이 깨져 '상생 협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누적 생산 20만대 달성을 이룬 GGM이 고객사인 현대차로부터 신뢰를 받아야만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노사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다.

GGM 관계자는 "캐스퍼의 국내외 판매 호조가 지속되고 GGM에 대한 고객사의 신뢰가 쌓이면 향후 주야간 2교대 가동도 가능하다"며 "그러면 300여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해 대거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 지역 청년이 고향에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일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금호타이어 곡성 공장

ISCC PLUS 인증 획득

재활용 원재료 80% 적용 제품 개발

금호타이어는 "곡성공장이 국제 지속가능성 및 탄소 인증(ISCC PLUS·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인증을 획득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ISCC PLUS는 바이오·재활용 원재료를 포함한 대체 원재료의 신뢰성과 추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국제 인증이다. 원재료 조달부터 최종 제품 생산·유통까지 전 과정에서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을 검증해 순환 경제와 탄소 중립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금호타이어는 지속가능성 연구개발을 추진해 2030년까지 40%, 2045년까지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활용 카본블랙, 페스틸 코드, 페플라스틱 기반 합성고무, 쌀겨 실리카, 해바라기유 등 지속가능한 재료를 80% 적용한 타이어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는 "이번 ISCC PLUS 인증은 금호타이어의 지속가능성 여경에서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도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순환 경제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혜나 기자 khn@kwangju.co.kr>

"명예롭게 퇴임할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

박광중 광주국세청장 명예 퇴직

박광중(사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30일자로 명예퇴직했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명예퇴임식을 가졌다. 퇴임식에는 한지웅 조사1국장을 비롯한 지방청 국·과장과 관내 15개 세무서장, 가족 등 내외빈 160여명이 참석했다.

박 청장은 퇴임사에서 "1985년 세무대학에 입학하면서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금과 인연을 맺었고, 함께해준 동료들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면서 "무엇보다도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박 청장은 후배들에게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박 청장은 "늘 강조해 왔던 것처럼 항상 웃고 살았으면 한다"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내 동료가 행복하고 우리 직원이 행복해야 우리의 고객인 납세자와 더 나아가 국민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424.60 (-6.61)
↓ 코스닥	841.99 (-4.7)
↑ 금리 (국고채 3년)	2.582 (+0.019)
↑ 환율 (US D)	1402.05 (+3.35) <오후 4시 39분 기준>

73 광주일보 73년 - 유튜브 3천만뷰 돌파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는 범죄입니다

24년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 시
최고 징역 10년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알바 댄는데 해볼래?

보험사기 알선·유인·광고 행위 신고하세요

신고 방법

<p>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p> <p>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p>	<p>각 보험회사 대표번호</p> <p>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p>
--	--

알선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실행하려는 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보험사기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위